일본에서 유니폼감의 값 인상을 어패럴 업계와 교섭 중

유니폼감을 생산하는 소재 메이커의 대부분이 유니폼감의 값을 올리기로 밝힘으로써 앞으로 어패럴 업계와의 교섭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 같다.

그런데 교섭이 앞질러 추진되고 있는 소재 메이커 중에서, 작업복감은 이미 구체적으로 값 인상 폭이나 실시 시기를 알려준 데도 있다. 어패럴 업계는 최종적인 교섭은 이제부터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, 전체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인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무드가 돌고 있다.

그러한 이유로서 원、연료 값이 오른 영향으로 이미 복자재(服資材)나 봉제 공임, 운송비 등이 올랐고, 옷감의 값 인상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. 어패럴 업계에서 가장 큰 '자중당(自重堂)'은 2007년 6월기 결산에서 원、연료 값 인상 등의 영향을 받아 감익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. 또 다른 어패럴 기업의 하나인 '구로다루마'도 모든 코스트 업 된 분을 판매점에게 전가하기도 어렵다, 어찌되었건 감익을 피할 수 없겠다고 말하고 있다.

또한 어패럴의 일부는 2006년 추동절부터 가격 개정을 실시하고 있으며, 소재 메이커와의 교섭이 끝나는 2007년 춘하절 후에도 이러한 움직임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.

한편 유력한 오피스 웨어 어패럴 업자의 말에 의하면, 오피스 웨어나 흰 옷은 값 인상의 말은 있는데, 신상품은 몰라도 기존 상품은 어렵다는 소리가 아직 많아 교섭은 쉽지 않은 것 같다.♣